

카자흐스탄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4. 2.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7
IV. 국제신인도	9
V. 종합의견	11

I. 일반개황

면적	2,725천 km ²	GDP	2,257억 달러 (2013년)
인구	1,714만 명 (2013년)	1인당 GDP	13,170달러 (2013년)
정치체제	대통령 중심제	통화단위	Tenge
대외정책	친러시아, 대 서방 우호관계유지	환율 (달러당)	152.10 (2013)

-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에 위치한 세계 제9위의 영토대국으로 원유, 천연가스, 석탄, 우라늄, 크롬, 금, 철광석 등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한 다민족·다종교 국가임.
- 1991년 독립 이래로 나자르바예프(Nazarbayev) 대통령이 장기 집권 중이며 견실한 경제성장과 사회복지 정책으로 국민들의 사회불만을 잠재우고 있음.
- 정부의 적극적인 대외개방 정책으로 원유·천연가스 부문을 중심으로 FDI 유입이 증가하였으며, 에너지 부문 수출에 기반한 꾸준한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음.
- 기존 러시아와 긴밀한 경제·안보 협력관계를 유지함과 동시에 최근 중국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노력 중임.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e	2014 ^f
경제성장률	7.3	7.5	4.9	5.7	5.4
재정수지/GDP	-0.7	-0.2	-1.5	-2.5	-2.1
소비자물가상승률	7.1	8.4	5.1	5.8	5.9

자료: EIU 및 OECD.

□ **민간소비 증가율 둔화로 2014년 경제성장률은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한 5.4% 시현 전망**

- 카자흐스탄은 원유, 천연가스 및 광물을 비롯한 에너지산업 위주의 경제구조임. 2012년에는 산업생산량 증가율 둔화, 원유 생산량 감소 등에도 불구하고, 국제원유 가격 상승으로 4.9%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함.
- 2013년에는 광물과 원유의 국제가격 하락으로 수출판매액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 증가, 투자 확대 등이 성장을 견인하며, 5.7%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2014년에는 소득증가율 둔화와 은행권의 민간부문 대출축소로 민간소비 증가율이 둔화됨에 따라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한 5.4%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 **인프라 및 사회보장 부문에 대한 정부지출 확대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규모 증가추세**

- 2012년 정부의 인프라 투자와 사회보장 부문에 대한 지출 증가로 GDP 대비 재정적자 규모가 전년 대비 확대된 -1.5%를 기록함.
- 2013년에는 연초 수립한 지출계획보다 다소 삭감된 재정집행에도 불구하고, 재정수입이 예상에 못 미침에 따라 정부 목표치(-2.1%)보다 높은 -2.5%의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함.

- 2014년에는 재정수입 증대를 위해 주류, 담배, 고급차량에 대한 소비세 및 재산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으며, 카자흐스탄 국부펀드(NFRK, National Fund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로부터 법정한도액인 90억 달러까지 예산에 전용함으로써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를 -2.1%까지 줄인다는 계획임.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수입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최근 5% 후반 대 수준 기록

- 카자흐스탄은 식료품 가격 및 공산품 수입가격 변동 등이 물가에 큰 영향을 끼침. 2012년 농업생산량 감소로 식료품 가격이 상승하였지만, 전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중앙은행의 물가관리 목표(6~8%) 이내인 5.1%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기록함.
- 2013년에는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 억제와 양호한 농산물 작황 성과가 소비자물가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였지만, 소비심리 회복으로 인한 민간소비 증가로 5.8%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2014년에는 세계경기 회복으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과 비슷한 5.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원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부문에 편중된 산업구조

- 카자흐스탄 경제는 원유, 천연가스 및 광물자원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인해 수출, 해외직접투자 및 재정수입 등이 국제원자재 가격 동향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고 있음. 또 제조업 기반이 취약해 자본재 및 소비재 등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 카자흐스탄의 원유 및 천연가스 등 에너지 부문은 GDP의 30% 이상을 차지하며, 수출의 약 55% 정도를 차지함.

□ 해외차입에 의존한 여신지원 활동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 부문 부실화 초래

- 카자흐스탄은 국내자본 축적 부족으로 투자자금을 주로 해외차입과 FDI에 의존해 왔으며, 그 결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용경색으로 해외차입이 곤란해짐에 따라 은행들이 만기도래 차입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은행부문이 취약해짐.
- 카자흐스탄 주요 은행인 알리안스 은행, BTA 은행, 테미르 은행 등 주요은행들이 디폴트를 선언함에 따라 카자흐스탄 국부펀드 삼룩 카즈나를 통한 은행 구조조정이 실시됨.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2012년 말 기준 은행부문 무수익여신이 총 대출액 중 31.7%에 달하며, 삼룩 카즈나를 통한 주요은행 정부지분율은 2013년 12월말 기준 알리안스 은행 67%, BTA 은행 97.3%, 테미르 은행 79.9% 등임.

나. 성장 잠재력

□ 미개발된 부존자원의 개발잠재력과 자원수출을 통한 자생력 보유

- 카자흐스탄은 원유, 천연가스를 비롯한 각종 광물자원(석탄, 우라늄, 크롬, 아연 등)이 매우 풍부해 에너지 분야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주요 에너지 및 광물자원 매장량 현황(2013년 6월 말 기준, BP)
 - * 원유: 300억 배럴(확인매장량 기준(추정매장량 제외)), 세계 12위
 - * 천연가스: 1.3조 m³, 세계 19위
 - * 석탄: 336억 톤, 세계 8위
 - * 크롬 세계 1위, 우라늄 세계 3위, 아연 세계 4위 등
- 카자흐스탄 내 주요 유전으로 카라차가낙(Karachaganak), 텅기즈(Tengiz), 카샤간(Kashagan)이 있으며, 이 중 카샤간 유전은 최근 2000년에 발견된 대규모 유전으로서 추정매장량만 350억 배럴에 달함.

다. 정책성과

□ 에너지 산업에 치우친 경제구조 개선을 위해 산업다변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정책성과는 미진

- 2012년 5월 카자흐스탄 정부는 아시아, 유럽 및 중앙아시아를 잇는 경제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철도망 및 무역루트를 개선하도록 하는 실크로드 전략을 발표하였으며, 이어 2012년 12월에는 기존 카자흐스탄 2030 계획을 대체한 새로운 중장기 계획으로 카자흐스탄 2050 (Kazakhstan-2050)을 발표함.
- 동 계획은 인프라, 교육, 보건 및 경제다변화를 중점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발달 수준이 저조한 비에너지 부문의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해 세계경제와의 연계성 강화를 꾀함.

□ 세계경제로의 편입을 위한 개방정책의 일환으로 WTO 가입 추진 중

- 카자흐스탄 정부는 1996년 1월 WTO 가입을 신청한 이후 세계관세 기구(WCO)의 원칙에 기초하여 관세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 중임.
- WTO는 카자흐스탄의 관세동맹 협정 내용 중 통상부문 일부 조항의 수정을 요구하고 있음. 해당조항으로 인해 2012년에 이어 2013년에도 회원국들의 반대로 WTO 가입이 무산된 바 있으나, 관세제도 개정을 통하여 지속적인 WTO 가입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3. 대외거래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e	2014 ^f
경 상 수 지	1,386	10,207	641	-1,948	-2,950
경 상 수 지 / GDP	0.9	5.4	0.3	-0.9	-1.2
상 품 수 지	28,500	44,844	37,852	31,004	32,609
수 출	61,392	85,194	86,930	84,410	89,313
수 입	32,892	40,350	49,078	53,406	56,704
외 환 보 유 액	25,239	25,174	22,132	18,276	..
총 외 채 잔 액	118,200	125,200	137,100	146,700	156,300
총외채잔액/GDP	79.9	66.6	67.7	66.0	62.8
D S R	32.7	23.4	21.9	23.4	22.4

자료: EIU 및 OECD.

□ **민간소비 둔화에 따른 상품수입 증가세 둔화로 2014년 상품수지 흑자는 소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

- 카자흐스탄의 주요 수출품목은 원유 및 석유화학제품, 천연가스, 광물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기계·장비류, 광물제품, 식료품 등임. 2012년 상품수출이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나, 민간소비 증가에 따른 상품수입 증가(전년 대비 21.6% 증가)로 상품수지 흑자는 전년 대비 축소된 379억 달러를 기록함.
- 2013년에는 원유생산량이 증가하였으나, 자국 내 정제시설 확대로 인한 국내수요 충당분 증가로 원유수출액이 감소하여 310억 달러 상품수지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2014년에는 민간소비 둔화로 인한 상품수입 증가세 둔화로 상품수지 흑자가 전년 대비 소폭 확대된 326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지질탐사 기술수입 등 서비스수지 적자 확대로 GDP 대비 경상수지는 2014년 중 적자규모 확대 전망**

- 에너지 기업들의 자원개발을 위한 지질탐사 전문기술 수입으로 서비스수지는 만성적인 적자를 나타냄. 또한 소득수지 역시 배당금 및 해외기업의 이익 송금,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지급, 외채원리금상환 등으로 만성적인 적자를 나타냄.
- 서비스수지 및 소득수지 적자에 상품수지 흑자액 감소가 겹치며 GDP 대비 경상수지는 2012년, 2013년 각각 0.3%, -0.9%를 기록함. 2014년에는 상품수지의 소폭 확대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수지 및 소득수지 적자 규모의 확대로 GDP 대비 경상수지가 -1.2%로 확대될 전망이다.

□ **총외채는 경제규모 대비 높은 수준이나, 차입여건 악화로 인한 외화차입 증가세 둔화로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율은 최근 하락세**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차입여건이 악화되며, 외채규모 증가가 둔화되는 추세임. 그 결과 금융위기 시 최고 96%에 육박했던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율은 2013년 말 기준 66% 수준으로 하락함.

- 총수출 대비 총외채잔액 비율 역시 금융위기 당시 219%까지 급등하였으나, 총외채잔액 증가율 둔화 및 총수출의 꾸준한 증가로 총수출 대비 총외채잔액비율이 크게 감소하며 2013년 말 기준 148.5%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그러나, 탱게화 환율 방어 등으로 인해 외환보유액은 최근 감소세

- 2012년 외환보유액은 221.3억 달러였으나, 상품수지 흑자규모 축소 및 순대외자본 유출 등으로 인한 탱게화 절하 방어를 위해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 개입함으로써 2013년 외환보유액은 183억 달러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 이에 따라, 외환보유액은 2013년 월평균수입액의 2.4개월분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됨.

III. 정치·사회동향

1. 정치안정

□ 높은 국민지지를 바탕으로 장기집권 체제를 지속하고 있으나, 現 대통령 사후 정치적 불안 가능성

-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1991년 구소련 연방으로 독립할 당시부터 현재까지 22년간 장기집권하고 있음. 지난 2011년 대선에서 95.5%의 득표율로 당선됨. 2016년 있을 차기 대선에서도 이변이 없는 한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이 당선될 것으로 전망됨.
- 現 대통령은 73세로 고령이나 뒤를 이를 강력한 인물이 부재하고 야당 세력이 미미한 점을 고려하면 향후 대통령의 건강 악화 등에 따라 정치적 불안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음.
- 2012년 1월 총선결과 여당인 Nur Otan당이 81%를 득표하여 107석 중 83석을 차지함. 의석을 획득한 나머지 2당도 모두 친정부 성향이 강해 2017년 총선까지 특별한 정치적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됨.

□ **집권체제 공고화를 위해 언론통제 등을 통한 반대세력 억압 및 지속적인 감시 수행**

- 정치적 억압 및 언론통제 등을 통해 야당세력을 견제하고 있으며, 정부 감시를 피해 해외로 망명한 세력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감시 및 관찰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 일례로, 카자흐스탄 투란알렘 은행 부패사건에 관련되었다는 혐의로 해외도피 중이던 아블리아조프는 실제로는 야당 창당을 지원한 이유로 카자흐스탄 정부의 지속적인 감시를 받아왔으며, 2014년 1월 초 프랑스에서 열린 재판 결과에 따라 카자흐스탄으로 인도될 예정임.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지속적인 경제성장률을 통한 실업률 하락으로 사회불안 요인 축소**

- 글로벌 경제위기 여파에도 카자흐스탄의 꾸준한 경제성장으로 실업률이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회불안 요인이 적은 편임.

* 실업률 추이: 5.4%(2011) → 5.3%(2012) → 5.3%(2013^o)

- 카자흐스탄 정부는 에너지자원 수출을 통한 외화수입으로 기본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을 통제하고 있으며, 경제위기 당시에도 사회보장 지출을 확대하여 국민불만을 잠재웠음.

3. 국제관계

□ **중국과 에너지 부문 협력 강화**

-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중국은 중앙아시아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카자흐스탄은 풍부한 에너지 자원을 보유한 중앙아시아 경제 중심국으로서 위상이 강화되고 있음.
- 2012년 6월 베이징에서 개최된 상하이협력기구(SCO) 회담에서 중국은 카자흐스탄을 비롯하여 러시아, 키르기즈,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과

협력방안을 논의하였으며, 2013년 9월 초에도 중국 시진핑 주석은 카자흐스탄을 방문하여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한 선언문에 서명하고 총 22개 사업 약 300억 달러 규모의 경제협력 계약을 체결함.

□ 전통적 우방인 러시아와의 관세동맹 발효 이후, 러시아 주도의 유라시아경제연합 추진 중

- 카자흐스탄은 과거 구소련 연방의 일부로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경제, 안보 측면에서 러시아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음. 2014년 NATO 군의 아프가니스탄 철수 결정으로 아프가니스탄 내 급진 이슬람 세력에 의한 중앙아시아 지역 분쟁우려가 대두됨에 따라 러시아와의 정치 및 안보 분야 유대관계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 2010년 카자흐스탄은 러시아, 벨로루시와 함께 역내상품, 서비스, 노동,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함과 동시에 공동관세정책을 사용하는 관세동맹(CES)을 결성하였으며, 2011년 8월 푸틴 대통령의 유라시아경제연합(Eurasian Economic Union) 제안을 통해 2013년 11월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로루시 3국간 유라시아경제연합 설립을 위한 규범, 목적, 기능상 기본원칙에 합의함.

* 유라시아경제연합은 관세동맹에서 보다 진전된 통합형태임.

IV.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 태도

- 총외채의 대부분은 중장기 외채로 구성되어 단기적 유동성 위험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OECD 회원국 ECA에 대해 연체 중
 - 카자흐스탄의 총외채는 2013년 말 기준 1,467억 달러 수준이며, 이 중 단기외채는 약 6.5%인 96억 달러 수준으로 대부분의 외채가 중장기로 구성되어 있어 단기적인 유동성 위험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 2013년 9월 말 기준 카자흐스탄에 대한 OECD 회원국 ECA의 인수승인 잔액은 단기 5.6억 달러, 중장기 30.7억 달러 등 36.3억 달러임. 이 중

3.2%에 해당하는 증장기 1.2억 달러가 연체 중이며 그 중 9천만 달러는 회수불능 상태임.

2. 국제시장 평가

<표 3>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수출입은행	C1 (2014. 2)	C1 (2013. 5)
OECD	5등급 (2014. 1)	5등급 (2013. 1)
S&P	BBB+ (2013. 7)	BBB+ (2012. 6)
Moody's	Baa2 (2013. 8)	Baa2 (2013. 2)
Fitch	BBB+ (2013. 11)	BBB+ (2012. 11)

□ 주요 신용평가기관 평가현황

- 2014년 1월 OECD CRE(Country Risk Experts) 회의에서는 카자흐스탄의 은행부문 취약성과 에너지 의존적인 경제구조 등을 반영하여 국가 신용등급을 이전과 동일한 5등급으로 유지함.

□ 주요 ECA의 지원태도

- 미국 EXIM: 조건부 중단기 인수가능
- 영국 ECGD: 최고부보율 적용
- 독일 Hermes: 단기인수 가능하나 제약조건이 있을 수 있음.

3. 우리나라와의 관계

<표 4> 한·카자흐스탄 교역 규모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1	2012	2013	주요품목
수출	757	885	1,075	자동차, 합성수지, 영상기기 등
수입	376	308	249	우라늄, 합금철선철 및 고철 등
교역규모	1,133	1,193	1,324	-

자료: 한국무역협회.

- **국교수립:** 1992년 1월 28일(북한과는 1992년 1월 28일)
- **주요협정:** 무역협정('92), 문화협정('95), 투자보장협정('96), 과학기술협력협정('97), 이중과세방지협정('99), 원자력의평화적이용에관한협정('04), 한국해외봉사단사업협정('06), 원자력협정('10) 등
- **양국간 교역규모는 꾸준한 증가세**
 - 우리나라의 대 카자흐스탄 주요 수출품목은 자동차, 합성수지, 영상기기, 건설광산기계 등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우라늄, 합금철선철 및 고철, 기타비철금속제품 등임. 양국간 교역규모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2012년 11.9억 달러, 2013년 13.2억 달러 수준의 교역규모를 기록함.
- **대 카자흐스탄 직접투자(2013년 9월말 누계): 243건, 22.3억 달러**
 - 우리나라의 대 카자흐스탄 직접투자는 2012년 제조업 부문에서 대규모 계약 및 프로젝트 투자가 증가하여 직접투자금액이 전년 대비 101% 증가한 2.3억 달러를 기록함.
 - 총투자 기준 2013년 9월 말 기준 누계금액은 22.3억 달러로 카자흐스탄은 우리나라의 19위 해외투자 상대국임. 주요 투자업종은 금융보험업, 건설업, 부동산 임대업 및 광업 부문임.

V. 종합 의견

- 2013년 민간소비 증가, 투자 확대 등이 성장을 견인하며, 5.7%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2014년 역시 민간소비 둔화 등으로 5.4%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 다만, 에너지 부문에 편중된 산업구조와 은행부문의 취약성이 문제로 지적되어 카자흐스탄 정부는 인프라 투자확대 등 산업다변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추진 중이며 부실은행의 구조조정을 지속하고 있음.
- 지속된 경제성장세로 실업률이 낮아지고 있어 사회불안 요인이 축소된 것으로 분석되나 1994년 이후 장기집권 중인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후계문제가 불확실한 점은 향후 정치적 불안 요소임.

- 총외채 중 단기외채 비중이 2013년 말 기준 6.5%로 낮은 수준이고 단기적으로 유동성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으나, OECD 회원국에 대해 연체 중인 점은 부정적임.

조사역 김세진(☎02-3779-5708)

E-mail: sejin0302@koreaexim.go.kr